

실용음악 고등학교에서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드럼 및 보컬전공 중심으로 -

홍 성 규* · 유 상 일**

이 연구는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부터 파생된 공연 및 영상콘텐츠들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영상콘텐츠를 통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연 및 영상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와 재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및 만족도 향상, 창의력 개발, 음악적 기량 향상, 음악현장으로서의 진출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실용음악 교육과정, 실용음악과 공연 및 영상콘텐츠, 융합콘텐츠, 교육과정과 공연 및 영상 콘텐츠의 연계

차 례

I. 서론

II.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1.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소개
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과별 공연콘텐츠
3.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의 융합과 교육과정의 연계

III.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드럼 및 보컬 공연과 영상콘텐츠 개발사례

1. 드럼전공 페스티벌 등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2. 보컬전공 페스티벌 등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IV. 공연 및 콘텐츠 개발의 성과 분석

1. 공연 및 영상콘텐츠의 연계 및 개발로 나타난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
2.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나타난 대외적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부교수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

I. 서론

최근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수많은 콘텐츠가 제작·배포되고 있으며 청소년 계층은 주 향유계층의 중심에 있다. 대중 예술은 항상 새로운 미디어와 조응하며 발전되었으며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육콘텐츠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콘텐츠 소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고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 사례에 주목하였다.

실용음악전공은 1988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여러 대학에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용음악학과가 만들어졌다. 현재 실용음악학과가 설립된 고등학교는 리라아트고등학교·서울공연고등학교·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경북예술고등학교·경남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러 실용음악고등학교 중 특별히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생 스스로가 교육콘텐츠를 기획·제작해 나가는 참여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개발 사례를 통하여 그 과정과 함께 최종 결과물을 살펴보고 교육적 성과에도 주목하였다. 입시중심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연의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의 완성까지 학생 스스로가 주도하는 자발적 교육의 효과는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용음악교육의 목적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음악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고등학교 실용음악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될 것이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무부, 음악부의 교육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전공실습’ 과목을 통해 시행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수업의 개요와 더불어 그 세부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객관적 결과물 이외에 수업 참여 학생들을 통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 교육효과에 보다 근접하고자 하였다.

II.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1.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소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실용음악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2006년에 ‘서울실용음악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한 이래 2008년 12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09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정식 학력인정 승인을 받았다.¹⁾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²⁾으로 지금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7개 학급 17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이 학교의 전공과목은 드럼·보컬·기타·베이스·피아노·미디 작곡 및 편곡·관악·뮤지컬 등 총 8개이다.

이러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명문 음악대학으로 손꼽히는 버클리 음악대학³⁾과 Musicians Institute⁴⁾, LA College of Music 그리고 영국의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등 많은 음악학교들이 대학 매거진을 통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소개하거나 방문 및 교류협력을 맺고 있다. SBS 서울방송에서는 ‘대안교육을 돌아보다.’⁵⁾ 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소개하며 대안교육의 교육모델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높은 대학진학률과 함께 가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룹 ‘샤이니’의 종현, ‘보이프렌드’ 그룹의 정민, ‘헬로비너스’라는 여성 걸 그룹으로 데뷔 후 연기자로 변신한 ‘아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통해 데뷔하게 된 유승우, ‘혁오’라는 이름의 밴드에서 기타와 드럼으로 활동하는 인우, 현재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아텔 커버영상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리디아 리’ 등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표적 뮤지션들이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과 대중적 성공을 성취한 졸업생들을 다수 배출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 2009년 개정안.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년.

3)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음악대학이며, 1945년에 개교하였다.

4)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에 위치한 음악대학이며, 1977년에 설립되었다.

5) 2014년 11월 18일, 11월 25일 방송.

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과별 공연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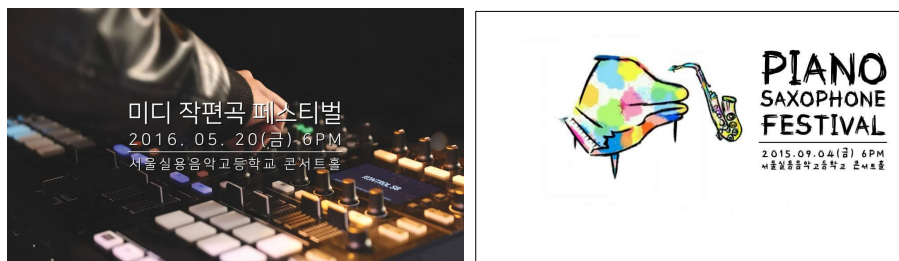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교과 항목 아래 ‘전공실습’이라는 전문선택 교과과정이 학기별 20시간씩 편성되어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이 ‘전공실습’ 교과과정을 통해 1년에 1회 각 학과별 공연콘텐츠를 기획한다.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순수하게 전공별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공정한 오디션을 통해 전공 내 공연 팀을 약 10팀 정도 선발한다. 공연의 이름은 보통 전공명과 ‘축제’의 뜻이 포함된 페스티벌이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페스티벌’, ‘작곡 페스티벌’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전공별 공연콘텐츠들은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기획되어진다. 홍보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들은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오디션을 준비하고 합격한 이후 자신들의 공연을 제작하는 것은 철저히 학생들에게 맡겨진다. 소속된 팀에 대한 공연 기획과 연습이 학생 자신에게 주어지므로 학생들은 기존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음악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 악기에 대한 특성과 표현 또한 스스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율적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시절부터 공연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음악 현장에 대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일찍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용음악학과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타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차별된 교육 환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음악인으로서의 미래와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림 1] 기타 페스티벌, 베이스 페스티벌의 홍보 포스터

공연이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체험을 통해 습득된 실무적 지식은 가변적인 현장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직결된다. 연습과 공연 리허설 등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공연콘텐츠의 기획과정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며, 그것을 통해 습득된 실무적 지식들은 무대상황에 따른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면서 연주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팀별 공연기획은 공연이란 한 명의 훌륭한 연주가 아닌, 연주자 구성원 전체의 연대 속에서 목적하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팀워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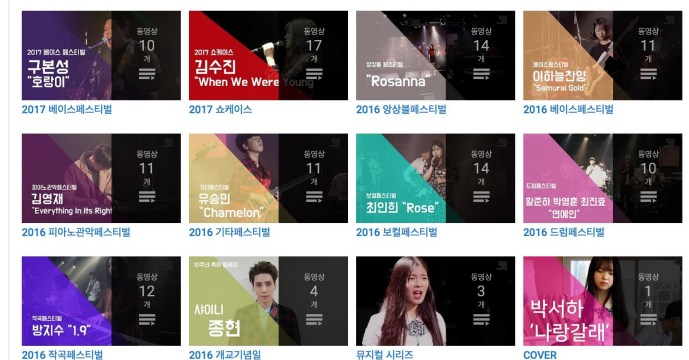
[그림 2] 미디 작편곡 페스티벌, 피아노&색소폰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공연콘텐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연 레파토리가 학생들의 자작곡 중심이라는 점이다. 물론 미디 작·편곡 전공의 ‘미디 작편곡 페스티벌’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작곡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전공 페스티벌도 다수의 팀들이 자신들의 자작곡으로 공연을 준비한다. 보통 연주자들은 전문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연주자 스스로 작곡한 곡의 공연은 보다 창의적인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작곡을 활용한 보컬전공과 드럼전공의 공연콘텐츠는 교내·외의 큰 반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드럼과 보컬전공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에 주목하였다.

3.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의 융합과 교육과정의 연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공연콘텐츠와 영상콘텐츠의 융합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서 나타나는 ‘지속성’과 ‘접근성’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각 전공 페스티벌’은 단지 1회성 연주로 그치지 않고 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업로드 된다. 이러한 공

연콘텐츠와 영상콘텐츠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록이 된다(김건 외, 2012, p. 51).



[그림 3] 'Youtube'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각종 영상콘텐츠들

또한 공연콘텐츠와 영상콘텐츠가 융합되어 탄생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영상들이 실용음악 입시생들이나 음악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 소통하면서 각종 SNS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내외적으로 개별 학생들과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 'Facebook' 페이지에 업로드 된 영상들

또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콘텐츠와 융합된 영상콘텐츠들은 그 자체로 학생 개인과 학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업로드 된 영

상자료들은 아카이브화 되어 항시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학생 개인의 연주에 대한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연주와 공연콘텐츠를 준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연콘텐츠와 영상콘텐츠의 융합으로 탄생한 콘텐츠들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예스더, 2007, p. 358).

Ⅲ.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드럼 및 보컬 공연과 영상콘텐츠 개발사례

1. 드럼전공 페스티벌 등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다양한 공연콘텐츠 중 드럼전공의 콘텐츠들은 대외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이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이나 ‘난타’와 같은 타악기 중심의 공연콘텐츠가 대중적 성공을 거둔 바 있고 최근 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드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그림 5]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드럼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무관치 않다. 드럼전공의 ‘드럼 페스티벌’ 역시 다른 학과의 콘텐츠들처럼 ‘전공 실습’ 교과과정의 일부로 편성된 공연콘텐츠이나,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악기인 드럼에 대한 특화된 연주와 공연을 기획하면서 드럼이 리듬악기라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하나의 메인 악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드럼전공의 콘텐츠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의 ‘서울드럼페스티벌’⁶⁾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페스티벌의 현장을 담은 영상콘텐츠들은 각종 인터넷 및 SNS에 업로드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과 소통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드럼전공 학생들이 2014년 서울드럼페스티벌 오프닝 공연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6] 서울드럼페스티벌 오프닝 공연 사진

2014년 이후의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적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하였으며, 학생들은 세계적인 공연 무대에 참가하면서 음악적 자신감의 획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주기량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6)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축제다. 1999년 이후 매년 서울의 주요 명소에서 열리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대표축제로 지정되었다.



[그림 7] 서울드럼페스티벌 홍보 이미지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대표적 공연콘텐츠 ‘드럼전쟁’을 파생시키게 되었다. ‘드럼전쟁’ 프로젝트는 드럼전공의 페스티벌에 앞서, 드럼 솔로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연주(교육과학기술부, 2007, p. 1)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작된 심화 학습의 일부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연습을 통한 개인적 노력과 성취를 체험하게 하고 선의의 경쟁이라는 학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드럼 전쟁’에서 만들어진 공연콘텐츠는 대내외적 반향과 함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대표적 공연콘텐츠 중 하나가 되었다.

드럼전쟁은 드럼전공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너먼트 형식의 프로젝트이다. 2017년 현재 ‘시즌3’까지 진행되었다. 평가 방식 면에서 시즌 1, 2와 시즌3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즌 1, 2에서는 두 대의 드럼을 설치하고 추첨을 통한 대진표가 완성 되면 일대일 방식으로 연주 대결을 하는 방식이다.

드럼전쟁은 최대 4라운드까지 나누어진다. 개별 연주자에게 부여되는 과제는 라운드별로 다르다. 제1라운드는 개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드럼솔로만으로 경쟁한다. 제2라운드에서는 드럼전공 교사들이 준비한 장르별 샘플음악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즉흥연주 및 개인연주의 기량을 겨룬다.



[그림 8] 드럼전쟁 결승전 사진

특별한 과정은 바로 제3라운드와 제4라운드이다. 이 2개의 라운드에서는 드럼 연주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게 되는데 연주에 대한 기본기 대결로부터 시작된다. 메트로놈 맞춰서 스트로크 대결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드럼전공 학생들이 직접 구성된 하우스밴드와 함께 편곡한 음악을 통한 연주경쟁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드럼의 화려한 퍼포먼스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연주기량만으로도 솔로 연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럼 전쟁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 심사위원은 교사 외에도 학생들 중에서도 선출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의견이 생산된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전공 학생들도 편곡이나 타악기 솔로에 대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9] 드럼전쟁 시즌2 결승전 홍보 이미지

2017년 ‘시즌3’에서는 드럼전쟁의 경쟁방식이 다소 변화하였다. 학생들에게 심화적인 학습의 장을 제공하려는 원래의 목적과 더불어, 학생 간의 연대와 협력을 깨닫게 하는 사회적 측면을 추가하여 평가 방식을 변경하였다. 과도한 경쟁과 ‘우승열패’적 측면을 경계하고 프로젝트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변화이다. 토너먼트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초기 라운드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앞선 시즌 1, 2에선 제1라운드 개인 솔로 대결이 일대일 구도였다면, 시즌3에서는 제1라운드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 한 팀이 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개인기를 보여주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함께 각자의 드럼 솔로를 연주하고, 그렇게 하나의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팀이 상위의 라운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틀을 깬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밴드 연주에 있어 드럼은 보통 한 대로만 연주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깬 점이다. 두 명의 드러머가 두 대의 드럼을 통해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토너먼트 방식에서의 보편적인 ‘경쟁’ 개념을 재해석한 점이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드럼전쟁 프로젝트는 토너먼트식 경쟁 구도 속에서 개인연주 기량의 발전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의미를 성취하였다. 이러한 점은 갈수록 단자화되는 최근의 음악환경에서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



[그림 10] 드럼전쟁 시즌3 결승전 수상 사진

음악은 만들고 연주하는 일 뿐만 아니라 듣는 행위도 중요한 음악 행위이다. 따라서 음악은 본질적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므로 개인의 기량 역시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드럼전쟁이나 전공의 페스티벌과 같은 공연콘텐츠들을 통해 음악이 지니고 있는 ‘함께’라는 큰 가치를 느끼고 배우게 된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는 드럼전쟁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각 SNS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유튜브 사이트에 학교 영상채널을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드럼전쟁의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2. 보컬전공 페스티벌 등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보컬전공 공연콘텐츠 역시 대외적으로 큰 반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공연콘텐츠는 ‘보컬 페스티벌’이 있고, 영상콘텐츠로는 ‘커버영상 제작’이라는 교과과정이 있다. 보컬 페스티벌도 다른 전공들처럼 ‘전공실습’의 교과과정 중 일부로 진행된다.



[그림 11] 보컬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실용음악 보컬전공 학생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대중음악계 진출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걸 그룹, 보이 그룹 열풍에 따라 최근 대중음악 가수의 연령대가 낮아진 점도 이러한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공연콘텐츠 자체가 대중음악 가수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가요 관계자들이 캐스팅을 위해 보컬 페스티벌을 참관한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공연콘텐츠의 특징 중 하나는 보컬전공의 개성에 대한 연구이다. 드럼전공의 페스티벌이 드럼의 독자적 연주에 대한 연구라면, 보컬전공의 페스티벌은 가요계 데뷔라는 목적 하에 기성가수와 유사한 음색 및 음악적 스타일을 고수하는 최근의 경향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보컬 전공

학생들이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개성 있는 창법과 그에 부합하는 장르를 선택하도록 돕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성과 가수로서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사들은 그 길잡이가 되어준다. 물론 드럼전공과 동일하게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길을 소개해줄 뿐이다. 교사들이 길을 정해주고 걸어가는 방식까지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에서 떠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방법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로 인해 공장 생산식의 유사한 보컬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색채를 지닌, 한 사람의 보컬리스트가 탄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확실한 자아 정체성과 음악적 방향성을 심어주게 되고 상업화된 음악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독창적 자질을 잃지 않고 음악적 실력 향상으로 연결하게 한다(이에스더, 2007, p. 36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보컬전공에는 드럼전공의 ‘드럼전쟁’ 콘텐츠처럼 독자적인 영상콘텐츠가 존재한다. ‘커버영상’⁷⁾이라는 영상 콘텐츠이다. 이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로드맵 중 하나로, 궁극적으로는 대중음악계 진출과 연관된다.

보컬 전공 학생들은 대중음악계 진출과 대중적 성공을 성취하는 가수가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보컬전공이 타 전공에 비해 대중음악계 진출과 밀접하다고 하더라도 진출까지의 과정이 지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출 이후에도 자신의 독창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하는 바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는 보컬페스티벌에 이어 개발한 영상콘텐츠가 ‘커버영상’ 제작이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입학 직후 ‘보컬연주법’이라는 수업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전공 지도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 목소리 고유의 색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보컬 스타일의 이해’ 수업을 통해 고유의 색채를 연구하고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수업의 과정을 이수한 이후 ‘전공실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컬전공만의 영상콘텐츠인 ‘커버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보컬 색채와 부합하는 노래를 선곡하고 그것을 직접 편곡한다. 흔히 커버영상이란 준비된 반주 음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커버영상 제작은 영상에 출연하는 보컬전공 학생이 자신의 보컬 색

7) 커버 : 어떤 오리지널 넘버를 다른 뮤지션이 자기 나름대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레코드로 만든 것을 커버 레코드라고 한다(삼호뮤직 편집부 (2002). 파퓰러 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이것을 영상화한 콘텐츠가 커버영상이다.

채와 부합하는 곡을 선곡하고 직접 편곡하며, 타 전공 학생들을 스스로 섭외하여 라이브 연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는 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각종 SNS의 학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보컬전공 학생들은 커버영상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영상제작을 통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또한 대중음악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커버영상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커버영상을 통해 가수로 데뷔하거나 세간의 화제인물이 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다수 있었다.

IV. 공연 및 콘텐츠 개발의 성과 분석

1. 공연 및 영상콘텐츠의 연계 및 개발로 나타난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

공연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해 온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시도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는 드럼전공 및 보컬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 항목은 3년 동안의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이며, 세부적인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3학년 드럼전공 학생 전원(1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이다(<표 1>).

<표 1> 드럼전공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⁸⁾

항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레슨	5 (50%)	3 (30%)	2 (20%)	0	0
학과 분위기	4 (40%)	3 (30%)	3 (30%)	0	0
학과수업 (전공)	4 (40%)	4 (40%)	2 (20%)	0	0
학과수업 (교양)	3 (30%)	2 (20%)	3 (30%)	2 (20%)	0
학과 특성화 콘텐츠 (드럼전쟁 및 페스티벌)	8 (80%)	2 (20%)	0	0	0
합계	48%	28%	20%	4%	0%

8)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무부 제공.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은 48%이다. 이중 드럼 페스티벌과 드럼전쟁 등 학과만의 특성화 콘텐츠에 대한 ‘매우만족’ 비율은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10명 중 8명의 학생이 3년 동안 드럼전공의 특성화 콘텐츠에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어 나머지 2명의 학생 모두가 ‘만족’으로 답하였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드럼전공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는 특성화 콘텐츠들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의 설문조사는 3학년 보컬전공 학생들 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이다(<표 2>).

<표 2> 보컬전공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소수점 이하 반올림)⁹⁾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레슨	4 (57%)	2 (29%)	1 (14%)	0	0
학과 분위기	5 (71%)	2 (29%)	0	0	0
학과수업 (전공)	4 (57%)	3 (43%)	0	0	0
학과수업 (교양)	3 (43%)	2 (29%)	2 (29%)	0	0
학과 특성화 콘텐츠 (드럼전쟁 및 페스티벌)	6 (86%)	1 (14%)	0	0	0
합계	63%	29%	9%	4%	0%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은 약 63%이다. 보컬전공 역시 보컬 페스티벌이나 커버영상 제작 등 학과만의 특성화 콘텐츠에 대한 ‘매우만족’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수치로는 약 86%를 보인다. ‘만족’의 비율은 14%였으며, 드럼전공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하의 평가는 없었다. 보컬전공의 만족도에서도 학과 특성화 콘텐츠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컬전공에서 ‘매우만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 콘텐츠를 통해 실제 대중음악계 진출로 이어진 결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만족도가 곧 학업성취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이나 학교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음악공부 자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콘텐츠 개발은 대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설문조사는 드럼전공 및 보컬전공 1학년에 재학 중인 27명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9)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무부 제공.

알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이다(<표 3>).

<표 3>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알게 된 계기¹⁰⁾

지인을 통해	드럼전쟁, 커버영상 등의 특성화 콘텐츠	학원 입시반	기타
7 (26%)	14 (52%)	3 (11%)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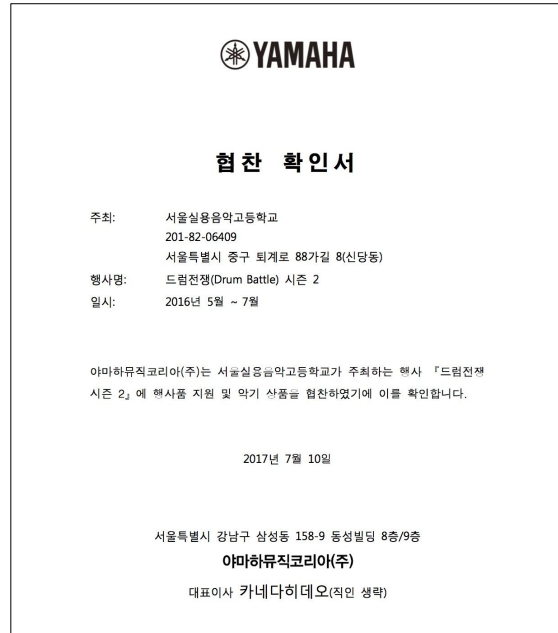
<표 3>을 보면, '드럼 페스티벌, 드럼전쟁 및 보컬 페스티벌, 보컬 커버영상 등의 학과 특성화 콘텐츠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약 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약 26%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학원 입시반 및 기타의 사유는 각각 11%의 응답을 보였다. 즉 학생들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알게 되고 실제로 지원까지 하게 된 계기는 특성화 콘텐츠의 영향이 컸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더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 모형의 개발은 학생들의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를 넘어 학교의 대외적인 영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나타난 대외적 결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성공적인 대외적 성과를 보임과 동시에 학교와 재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되었다. 드럼 페스티벌을 통해 '서울드럼페스티벌'에 참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드럼전쟁은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야마하뮤직코리아(주)'가 공식적으로 학교 행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악기 제조 기업들의 협찬은 드럼전쟁이라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콘텐츠가 악기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들은 협찬 사례를 통해 보다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다. 실제 음악의 현장에서도 하나의 아티스트가 세계적 악기 제조업체의 협찬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므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기회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10)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음악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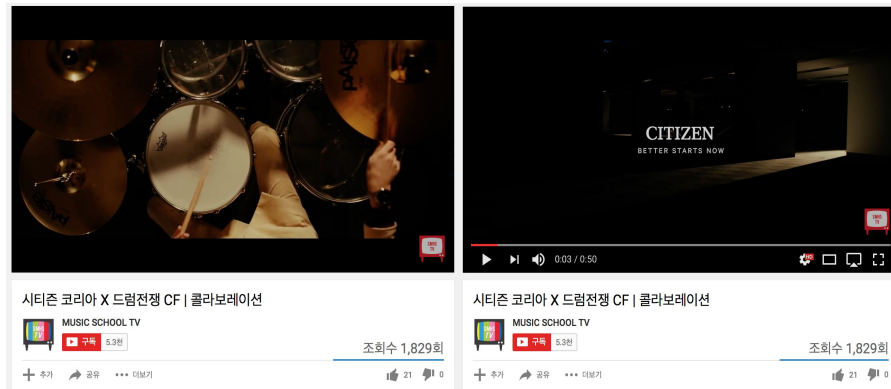
[그림 12] 아마하뮤직코리아(주)의 드럼전쟁 협찬 확인서¹¹⁾

드럼전쟁이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가치는 방송과 광고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BS 서울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드럼전쟁을 소개하였으며, 세계적인 시계회사 ‘시티즌’이 드럼전쟁 참가자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드럼이라는 악기만을 통해 공중과 방송과 광고에 진출한 것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드럼교육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그림 13] SBS 예능 ‘스타킹’ 출연

11)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홍보부 제공.



[그림 14] 시계회사 ‘시티즌’과 드럼전쟁의 콜라보레이션 광고

보컬전공의 콘텐츠 또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델 소녀’로 유명해진 이예진 학생이 바로 보컬전공의 ‘커버영상’ 콘텐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수 아델의 ‘Hello’ 커버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 영상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림 15] ‘아델 소녀’로 알려지기 시작한 커버영상

국내에서의 관심이 결국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선 가수 싸이 이후 두 번째로 미국 NBC의 토크프로그램 ‘앨런 쇼’에 이예진 학생이 출연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이예진 학생은 자신만의 색채를 지닌 보컬리스트로서 대중음악계

에 진출하였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조응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노력이 학교와 학생 개인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이다.

이후로도 제작된 보컬전공의 커버영상들을 통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와 만남이 성취되었다. 그 첫 번째는 ‘네이션 사익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이다. 네이션 사익스는 2017년 6월의 첫 내한공연을 앞두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보컬전공에서 제작한 자신의 커버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 감동받아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방문하였다. 또한 ‘악동뮤지션’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연 및 영상콘텐츠를 통해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재학생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16] 네이션 사익스의 학교 방문 사진



[그림 17] 악동뮤지션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방문 사진

V. 결론

공연과 영상콘텐츠의 연계로 제작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성과는 실용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실용음악 교육 모델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이는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졌다.

<표 4> 2017년도 졸업생 대입 현황(2014년 입학, 2017년 졸업)¹²⁾

항목	피아노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작곡	합계
정원	10	12	5	7	5	8	47명
합격	6	5	1	3	3	5	23명
합격률	60%	42%	20%	43%	60%	62.5%	48.9%

<표 4>에서 나타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그 방증이다. 또한 창의적인 심화학습을 통해 연예계 데뷔나 기획사 및 대회 초청 등 실제 음악현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드럼페스티벌과 드럼전쟁 등의 드럼 연주 프로젝트는 드럼이 다른 악기의 보조적 역할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메인 악기로서 공연을 기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우승열패식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팀워크를 중시하는 공연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보컬페스티벌과 커버영상 제작 프로젝트는 단순히 대중음악계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아닌, 개별 보컬의 특색과 역량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보컬리스트로서 가치를 지닌 음악인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게 함을 물론, 결과물인 영상콘텐츠들을 통해 하나의 음악인으로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상에 자신의 기량을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서울드럼페스티벌 공연 참가와 방송 및 광고 출연, 악기협찬 및 후원, 대중음악계 진출 등 다양한 대외적 성과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또 다른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1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무부 제공

은 그것과 관련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으로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인 학업성취도의 제고라는 결과물을 생산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높은 자기존중감 형성, 도덕성과 성격의 발달등과 같은 청소년기 발달 영역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 중 하나인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델이 되었다.

실용음악분야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론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드럼 및 보컬 교육 모델과 다양한 교육적 아이디어, 교육콘텐츠들은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타 학교에서도 응용가능한 성과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용음악교육은 뉴미디어와의 연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교육 모델의 개발은 또 다른 긍정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현구 외 (2005).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울: 글누림.
- 구문모, 이현숙 (2010). 문화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문화경제연구**, 13(1), 133-160.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2, 예술계열 전문 교과**. 서울: 저자.
- 교육부 (1997). **예술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김건, 두일철 (2012). 실용음악 고등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문화예술콘텐츠**, 8, 45-65.
- 김도수 (2011). 한국의 현대 '실용음악'과 '보컬'의 개념상의 문제점 및 고등교육에서 보컬의 학문적 수용 전망. **이화음악논집**, 15(1), 53-93.
- 김진아 (2011). 아이돌 중심 대중음악시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 아이돌 가수 탄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 박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철홍 (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민족음악학회**, 23.
- 삼호뮤직 편집부 (2002). **파퓰러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 양은주, 김선희 (2009).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현황 및 실태분석. **음악이론연구**, 14, 61-89.
- 오지선 (2003). **한국근대음악교육: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예술.
- 이광재 (2001).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에스더 (2002). 한국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필요성 인식과 지식기반에 관한 연구. **음악과 문화**, 7, 93-111.
- _____ (2007). 문화콘텐츠산업과 음악교육의 실용적 접근. **음악과 민족**, 34, 355-372.
- 이용환 (2005).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서울: 형설출판사.
- 이정선 (2010).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 개설형태. **음악교육연구**, 38, 119-148.
- _____ (2010). 韓國 大學 實用音樂教育制度의 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충한 (2008). 디지털 복제 시대 문화 생산과 향유에 대한 연구: 1998-2007 한국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지영 (2007). 교육적 콘텐츠로의 한국 대중가요의 활동과 필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174-185.

조복희 외 (2010). **인간발달**. 파주: 교문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문화콘텐츠 국내외 교육기관 현황조사**. 서울: 저자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과정 2000연구개발 특수 목적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연구보고 CR96-33). 서울: 저자.

_____ (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연구(I)** (연구보고 RR 2003-2). 서울: 저자.

ABSTRACT

**Content Development of Video Clip and
Stage Performance in Applied Music
High School**

**- A Case Study of Drum and Vocal Class in
Seoul Music High School -**

Hong, Sung-Kyoo · Ryu, San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and develop a new model of education connected to video contents and stage performance contents in high school applied music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levant data in an effort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nd derived contents. Furthermore,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tudents in school about thei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level in connect and development of video contents and stage performance contents.

Thereby, developing a new model of education showed positive results in connected field like these : Getting improvement of achievement in education, Developing creativity and musical abilities of students, Making student's debut possible.

In this study, the result was contemplated through a model of education from Seoul Music High School's curriculum.

Key words: applied music curriculum, applied music and video contents & stage performance contents, content convergence, connection between curriculum and video contents & Stage performance contents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1일(10월 14일), 게재확정일: 11월 5일